

A winter-themed illustration. In the center, a red car is parked on a road. To the left, a snowman with a red hat and scarf stands on the snow. To the right, a mechanic wearing a green cap and overalls holds a tire. A dark blue speech bubble at the top contains Korean text. The background features snow-covered mountains, a house with lit windows, and evergreen trees under a light blue sky with white clouds and falling snow.

겨울이 다가 왔어요!
차량 월동준비 해볼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차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월동준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이어 공기압 확인 및 겨울용 타이어 장착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타이어 내 공기 수축
(타이어 공기압 ↑)



제동능력 ↓
조향성능 ↓



빙판길, 눈길
대형사고
발생 위험 ↑



10% ↑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10% 정도 더 높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길, 빙판길 운행이 많은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반드시 점검**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타이어체인을 차량 내에 비치하며 가급적 접지력이 좋은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기서 잠깐! 타이어의 공기압은?



공기압 과다

외부 충격에 약하며,
불규칙한 마모의 원인



적정 공기압

도로와 완전한 접촉을 하여
최대의 견인력 및 제동력을 발휘



공기압 부족

사이드 휠의 기울어짐이 크며,
불규칙한 마모의 원인

냉각장치와 부동액 점검



부동액 양과 상태(농도, 녹물 발생여부 등)를 점검해주세요. 겨울철 온도가 낮아 부동액 비율이 너무 낮다면 냉각수가 얼어붙어 엔진과 라디에이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액 점검



부동액 교환한지 2년(4만km)이 넘으면 갈아주기



부동액과 물의 혼합비율 5:5



2년 이상 사용한 고무호수는 점검 필수

부동액은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고, 라디에이터 및 관련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

냉각수 점검

냉각수는 물과 부동액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로, 부동액은 영하에서도 냉각수가 얼어붙지 않게 **어는 점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10°C 이하
냉각수
점검 필수



-10°C 권장혼합비율 6:4~5:5

-14.5°C 이하 7:3

-34°C 이하 5:5

< 부동액과 물의 비율 >

· 냉각수 보충할 때

지하수나 생수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 속에 포함된 각종 성분이 냉각계통 속에서 엉겨 붙어 녹의 원인이 되므로 수돗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 냉각수가 얼었을 경우

강제로 녹이지 말고, 햇볕이 드는 곳에 차를 세워두고 자연 해동하세요. 해동 후, 즉시 냉각수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터리 점검

추위에는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약 10~15분 정도는 가볍게 운행** 해주고, 주차 중 블랙박스 기능은 주차모드로 전환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점검법



단자에 먼지가 쌓이면 접촉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칫솔이나 브러시를 이용해 단자의 먼지, 본체의 이물질을 깨끗이 털어냅니다.



헐거워진 단자의 볼트를 꼭 조여주고, 단자 상단부에 이물질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를 살짝 발라줍니다.



점검 표시창을 통해 전해액 상태를 확인합니다. 녹색이면 정상, 검은색이면 충전 부족, 회색이면 전해액이 부족하다는 뜻이니,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 정비업체를 방문해 수리하도록 합니다.

배터리 방전이 의심될 때



스타터 모터의 힘이 약해져 시동을 걸었을 때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속기를 밟는 정도에 따라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변합니다.



경적 소리가 갑자기 작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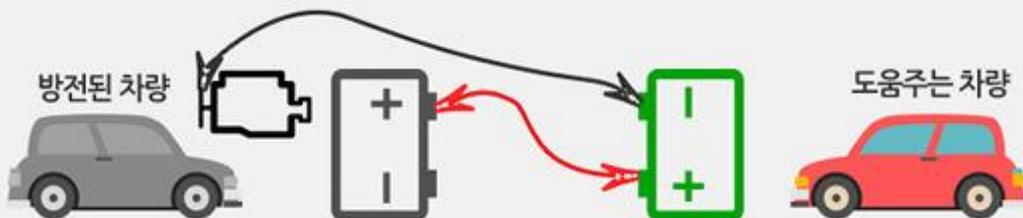


충전을 해도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방전된 배터리 대처방법 (배터리 점프)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배터리 점프'를 이용하면 손쉽게 내 차의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점프란 다른 차의 배터리와 내 차의 배터리를 연결해 순간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시동을 걸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 주의사항: (+)극용 점프선 집게와 (-)용 점프선 집게가 절대 만나지 않게 합니다.



배터리 전압

두 차량의 배터리 전압이 맞는지 확인 *보통 일반 승용차 12V, 대형 차는 24V를 사용합니다.
꼭 전압이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압이 맞는 경우에 전원공급이 안정적이고 차량 훼손도 덜함.

+ 빨강 집게

방전된 차량 배터리의(+극) 캡을 열어 붉은색 (+)점프선 집게를 연결.
반대쪽 집게는 도움을 주는 차량의 (+)극에 똑같이 연결합니다.

- 검정 집게

도움을 주는 차량의 (-)극에 검은색 (-)용 점프선 집게를 연결하고
반대편 집게를 방전된 차량의 엔진블록이나 차체 등 금속 부분에 연결합니다.

도움주는 차량
공회전

도움을 주는 차량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중립에 둔 채로 RPM을 2000~3000까지
공회전 시킵니다.

방전차량 5~10분
기다리기

방전된 차량의 시동을 켜본 뒤, 시동이 걸릴 경우 5~10분 정도 배터리 충전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주는 차량의 엔진을 시동시킨 채 정지

- 집게부터 제거

두 차량의 시동을 모두 끄고 배터리의 (-)극 점프선부터 제거합니다.

전조등과 안개등 점검



눈서리 등 운전자의 시야 방해 요인이 많은 겨울철에는 후방추돌을 예방하기 위한 브레이크등, 시야확보를 위한 전조등과 안개등을 점검하세요.

차량 하부 점검



눈을 녹이기 위해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은 차량 하부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눈길 주행 후에는 하부 세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